

伊의사, 획기적 간암 치료법 시도

암종양이 여러 곳에 퍼진 간(肝)을 절제해 체외에서 고단위의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뒤 다시 환자에게 이식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이탈리아에서 시도되었다고 영국의 과학전문지 '뉴 사이언티스트' 최신호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.

이 수술은 이탈리아 파비아에 있는 산 마테오병원 외과전문의 아리스 존타 박사와 국립핵물리학연구소의 타지오 피넬리 박사에 의해 21시간에 걸쳐 시행되었다고 '뉴 사이언티스트'는 전했다.

환자는 원래 결장암이었으나 나중에 암세포가 간으로 번져 간에 14개의 종양이 형성된 48세의 남자로 이 수술을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현재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.

수술 전 이 환자는 화학요법이 듣지 않고 재래식 방사선 치료를 하면 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.

존타 박사와 피넬리 박사는 1950년대에 처음 시도된 뒤 연구를 계속해 오던 '붕소(硼素)중성자 요법'을 이 환자에게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.

이 방법은 붕소원자를 함유한 용액을 환자에 주입하고 저에너지 중성자 빔을 이용, 붕소를 분자들로 분리시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다.

그러나 장기 전체를 치료하려면 고른 중성자 빔 조사가 필요한데 체내의 뼈가 이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결국은 간을 통째로 절제해 체외로 꺼내서 치료 한 것이다.

피넬리 박사는 간을 체외에서 치료하면 환자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고도 간 전체에 고른 고단위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지만 체내에서는 이러한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.

이러한 치료법은 그러나 암세포가 오직 한가지 장기에만 전이되고 또 이런 수술을 견딜 만큼 체력이 강인한 환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피넬리 박사는 말했다.

회원사 소식을 전합니다

그 달에 있었던 소식을 RI NEWS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
회원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●연락처 : (02)3411-6496

●담당자 : 임 지 은